월요광장

비록 닫힌 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확실히 타인은 부담스럽고 의심스러우며 자주 공격적이어서 알 수 없고 불편한 존재다. 갑자기 평소와 다른 모습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동시에 우리는 매일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대화하고 마음을 내보이며 이해받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에 연연하며 때로는 그 기대에 맞춰서 마음에 없는 행동도 한다.

세상에서 존재하기에는 두 방식이 있다고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한다. 그는 즉자와 대자로 구분한다. 즉자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사물의 방식이다. 즉자는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놓인 화병은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어떤 꽃이 꽂히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생각도 의식도 없다. 이런 즉자적 존재는 꼭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의 의미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잉여적 존재이다.

반면에 대자 존재는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는 존재다. 대자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극복하려 애를 쓴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묻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서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고민하는 것의 증표다.

때때로 사람은 불안을 회피하고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즉자적인 방식의 삶을 택한다. 즉자적 삶은 타인과의 관계를 쓸모없는 것으로 보며, 세상에서 오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태도다. 관계의 방식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정하며, 오직 자신만 판단과 결정에 대한 유일한 주체라고 믿는다. 대자 존재인 사람도 주변 사람들과 상호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과 소통의 단절 속에 산다면 사물과 같은 즉자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과거보다는, 지금, 여기의 현재를 충만하게 산다.

1943년에 사르트르가 발표한 희곡 '닫힌 방'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세 사람의 이야기다. 이미 한번 죽은 세 명은 한 방에 갇혀서, 언제 상황이 끝날지 모른 채 있다. 이 상황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것은 서로의 시선뿐이다. 한시도 피할 수 없는 서로의 시선을 통해서 서로를 보고, 보이는 것이다. 애써 감시하지 않아도 감시당하는 상황이니 적나라하게 보고 있고, 보여지는 관계는 결국 지옥이 된다. 타인의 시선이 내뿜는 폭력성은 지옥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아! 정말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라는 외침이 터져 나온다.

그렇게 해서 타인의 시선이 지배하는 곳에서 타인은 나의 지옥이고, 나는 타인의 지옥이 된다. 하지만 시선과 관계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인지라 이 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르트르는 닫힌 방을 통해서 오히려 대자적 태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비록 타인은 지옥이지만 '나'를 나의 밖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닫힌 방'은 "좋아, 계속하지"로 벗어날 수 없는 시선을 인정하면서 끝난다. 사람은 오히려 시선 지옥을 통해서 대자적 시선을 획득하며, 공허한 잉여의 삶을 넘어서고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자신의 시선만 절대화해서 세상을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오직 자신의 시선으로 지배하려는 모습은 사물과 같은 즉자의 속성이다. 타인의 시선 또한 자신의 시선과 같은 가치라는 것을 부정하는 무지다.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가 상호적인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사물처럼 산다는 것 아닌가. 부끄러운 일이다.

닫힌 방은 우리가 관계 속에 사는 방식에 대한 비유다. 크고 작은 많은 관계 속에서 누구나 살아간다. 사람이 있는 곳에 시선이 없는 곳은 없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은 우리에게 지옥이지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의 닫힌 방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선의 전체주의와 독단부터 거부해야 할 일이다.

수필의 향기

고요

김향남
수필가

먼지를 날리며 버스는 갔다. 차에서 내린 나는 아주 천천히 걸었다. 피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고 미룰 수 있는 한 미루고 싶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직면한단 말인가. 가족들은 아직 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내 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들녘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그리고 길게 이어진 강을 따라 느릿느릿 걸었다. 그 끝 너머에 우리 집이 있었다.

수업시간, 담임선생님이 불렀다. 복도로 나가자 가만히 나를 바라보시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들어가서 가방 가지고 나와, 했다. 네? 내가 다시 물었다. 아파 누워 계시긴 했지만 그런 소식을 들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선생님을 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얼른 집으로 가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몇몇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학교를 나왔다. 하교 시간도 아닌데 밖으로 나오기는 처음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흘끔거리는 것 같았다. 나 역시 전혀 다른 곳을 걷고 있는 듯했다. 내리쬐는 햇살도, 건들거리는 바람도, 승강장 옆의 가게들도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어쩐지 모두 딴 세상처럼 보였다. 집으로 가는 시외버스에도 교복 입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마당은 벌써 장례식장으로 변해 있었다. 분명하게 우리 집 마당인데도 선뜻 들어서기가 낯설었다. 그렇다고 어디로 돌아설 수도 없고,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섰다. 오매, 이 집 막둥이 왔네. 마침 아랫집 당숙모가 나를 보고 외쳤다. 아이고 어쩌끄나잉. 어서 들어가 아버지 뵈거라. 마당으로 내려와 몇 번이나 내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아버지는 병풍 뒤에 계셨다. 그 옆에 바짝 앉아 있던 오빠가 병풍을 걷었다. 흰 수시포에 덮인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는, 고요했다. 가만히 누운 채 엷게 미소짓고 있는 듯이 보였다. 희고 투명하고 평화로운 꿈을 꾸는 듯도 싶었다. 모든 것을 거둬들인 뒤의 마지막 표정, 삶을 마무리한 뒤의 첫 표정. 아버지는 왜 저토록 편히도 누워 계시는가. 온갖 간난을 다 겪은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죽음이 저토록 편안한, 저토록 고요한 것이라니. 지레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었지 않은가. 문득 부음을 듣고도 그토록 더디 움직였던 내 모습이 스쳐 갔다.

나는 아버지의 삶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맨주먹인 아버지가 저 질곡을 건너오는 동안 겪었을 무수한 고통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일제강점기, 아버지는 바다 건너 먼 타국에서까지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척박한 환경에서 세 끼 먹기에도 버거운 삶을 살았다. 그뿐이랴.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도 없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것도 힘에 겨운 일인데, 뒷바라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전혀 아니었다. 아버지의 등짐은 한 번도 가벼워 본 적이 없었다. 마지막 3년은 병마와도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고요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훌훌 안식에 드신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비로소 해방에 이르신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만족스럽게도 보였다. 죽음이란 혹시 온갖 수고를 감내한 자에게 내리는 신의 은총이 아닐까?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며 슬퍼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일까?

밤이 되었다. 짙게 깔린 어둠은 또 다른 고요를 품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고요만큼 깊어 보이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그것은 깊기도 하려니와 단단하게도 여겨졌다. 아버지의 모든 기쁨, 슬픔, 고함, 침묵, 질책, 격려들이 한데 뭉쳐 이루어낸 견고한 침묵이거나 깊은 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죽음은 언제나 슬픈 일이지만, 그 마지막 표정 때문인지 오히려 위로받는 느낌이 더 짙게 들었다.

그날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완전히 슬프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죽음이 뭔지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은 열여덟의 나에게 아버지는 부러 안심시켜주셨는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안녕하다고, 그러니 아무 것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 황당하기만 한 현실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나에게 기꺼이 일러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부드럽고 단단하게 그 말씀을 새겨 놓으셨는지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마침내 고요에 이른 한 사람의 초상이 안개처럼 스며들어 온다.

기 고

커머스가 광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광주FC(Food Club)가 창단됐다. 광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11개 제품을 밀키트 기술을 통해 상품화했다. '11'이라는 숫자에서 착안해 광주FC(Football Club)와의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스토리와 브랜드 마케팅을 지역의 IP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었다. 흑백요리사 안유성 명장의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화제다. 2024년은 광주 소상공인 상품화 지원 원년이다.

얼마 전 첨단에 쿠팡 풀필먼트 물류센터가 생기고 2030년 복합쇼핑몰이 연이어 개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소비자 후생성 관점에서만 이야기되고 있어서 새로운 반찬을 올려 보려한다. 기존 제조업, 소상공인 자영업과 함께할 광주 산업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키우고, 되살림력(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로 재탄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류센터와 복합쇼핑몰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커머스'다. 전통적인 물리적 시장의 개념을 넘어,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및 상공업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이런 연결을 통한 새로운 수요혁신과 소비창출이야 말로 공공의 쓸모일 것이다. 과거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기업)의 슬로건이던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가 새로운 시대에는 지능적으로 지구적으로 소비하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먼저 커머스 산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경제는 비대면 거래로 소규모 사업자들도 대규모 유통망 없이도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역 내 전통 시장이나 상점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디지털 단골을 만들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성장해갈 수 있다. 경제권력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로 교체됐다. 소비자는 나만의 소비와 새로운 경험을 갖기를 원한다.

특히, 로컬 브랜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그 가치를 전국적으로, 글로벌하게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커머스 산업은 외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성장 가능성을 가진 AI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벤처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경제 구조의 다변화에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다시금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류 및 교통 인프라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물류 창고, 배송 시스템, 그리고 관련 인프라가 해당 지역에 구축되고 발전하게 되며,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물류와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인근 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경제적 혜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는 물리적인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은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배달, 스마트오더, 온라인판매 등 지역의 소상공인은 다양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플랫폼 기술이 대중기술이 된 지금 공공적 플랫폼을 구축해서 로컬 브랜드들이 함께 배달, 커머스 등을 진행하거나 공동 물류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비용 절감과 함께 상호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경제 구조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커머스 중심 도시는 지역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며, 물류와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한편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외부 자본의 유입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포괄적 해결책으로 의미가 크다.

광주씨는 커머스의 C다. 사과속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속 사과는 셀 수 없다.

社說

출산 감소해도 청소년 예술분야만은 살려야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광주·전남 청소년들의 예술 활동 참여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 합창단의 단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76년 창단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1200여 회 연주를 통해 지역 문화 사절로 활동해왔지만 출산율 저하 기조와 맞물려 지원자 수가 줄어들면서, 자칫 지역 최고의 청소년 예술단이라는 명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들게 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평균 단원 수를 50명 정도 유지해왔지만 2023년 기준 46명으로 줄었으며, 내년에도 추가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다.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도 상황은 마찬가지. 2020년 60명을 선발했지만 매년 줄어 올해에는 40명을 입단시킨 상황이다.

어린이·청소년 합창단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들이 모여서 실력을 뽐내기 위한 자신들만의 모임이 아니다. 어린이·청소년 합창단은 음악 활동 이전에, 인간 감성의 기본이 되는 음악과 사회 생활의 기초가 되는 협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행위로 자신들의 재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정서까지 함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 합창단이나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광주일보도 69회나 치른 호남예술제에서 합창 경연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어린이들의 노래가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 지역보다 인구가 적어도 유명한 어린이합창단을 가진 도시는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지자체와 문화단체들은 합창단 지원자 늘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충장로에 홍콩거리, 상권 활성화도 좋다지만

호남 상권을 대표하는 광주 충장로는 1970~80년대 최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광주 상권이 다핵화하면서 침체를 겪고 있다. 상가 공실률이 30%를 웃돌 정도로 침체되다 보니 충장로 상권 활성화가 광주시 동구의 최대 현안이 됐다.

광주시 동구가 충장로 3가 이면도로에 홍콩의 밤거리 풍경을 재현한 일명 '홍콩거리' 조성에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는 내년 2월까지 2억 원을 들여 이면도로에 홍콩식 레스토랑과 주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폐점으로 인적이 끊긴 이곳에 한자로 된 네온사인 간판과 도로 안내판 모양의 조형물 등을 설치해 홍콩의 밤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이다.

홍콩 거리 조성에 대해 동구는 홍콩이 젊은이들의 인기 여행지인데도 광주에 일본풍 상가는 많은데 비해 홍콩풍 점포가 드물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인근에 내년 5월 개장할 예정인 복합 쇼핑공간인 '몽키 터미널'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도 동구가 홍콩 거리 조성에 나서는 배경으로 보인다.

충장로 상권 활성화에 반대하는 상인들과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홍콩 콘셉트의 거리는 느닷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몽키 터미널이란 민간 사업자의 사업을 세금을 들여 도와준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2억 원이라지만 충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인 '핵점포 육성사업' 예산의 절반을 투자하다 보니 적은 혈세도 아니다.

K-pop스타의 거리, 혼수의 거리, 영화의 거리 등 기존 특화의 거리가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화거리 남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상권 활성화 대책에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느닷없는 콘셉트라는 지적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더 고민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은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

無等鼓

청동거울

고조선을 거쳐 한반도에 유입된 청동거울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대표한다. 거울로 불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얼굴을 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반사경이다. 고고학계에서는 샤먼이 태양빛을 가슴에서 반사함으로써 신비한 힘을 과시하는 의례용품으로 해석한다.

청동거울에는 끈을 매는 '뉴'(紐)라는 구멍이 뚫린 꼭지가 달려 있다. 구멍에 줄을 꿰어 목에 걸면 꼭지가 있는 부문이 안쪽이고 바깥으로 보이는 면이 전면이다. 일반적으로 다뉴조문경, 다뉴세문경으로 불리는데, 구분의 기준은 표면 가공과 세공기술의 차이다. 우리말로 전자를 거친무늬 거울, 후자를 잔무늬 거울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친 무늬 거울이 초기에 제작됐고 3세기에 들어서면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진 잔무늬 거울이 유행한다.

청동거울은 고분에서 종종 파손된 채로 발굴된다. 지난 5월 경북 경주에서 발굴된 기원전 1세기 청동거울 조각도 마찬가지다. 거울 조각은 무덤에 매장된 사람의 가슴 부근에서 발견됐다. 깨진거울은 이른바 무덤 부장품을 파손하는 훼기(毁器) 의례의 하나다. 부장품을 깨뜨리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죽은 사람과 이별의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된다. 이승과 저승은 반대라는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도 간주된다. 이 풍습이 현재 부부간 결별을 뜻하는 쓰이는 파경(破鏡)의 연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훼기 의례와 반대로 천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죽은 이의 곁에 두기도 했다. 가족의 건강 기원 등 소망을 담은 글씨와 문양을 거울의 뒷면에 정성스럽게 새기기도 했다.

국립나주박물관이 최근 개막한 기획특별전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을 내년 2월 9일까지 개최한다. 삼한~삼국시대 거울과 함께 최근 출토된 전시품 등 모두 270여 점을 선보인다. 전국에서 출토된 청동거울을 모두 모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거울 전시다. 국보로 지정된 거울 2점(화순 대곡리 정문경, 무령왕릉 의자손수대경)과 최근 발굴된 함평 엄다리 제동고분, 고흥 신호리 동호덕고분 유물도 포함돼 있다.

저물어 가는 한 해, 청동거울에 깃든 고대인의 흔적과 심성을 더듬어보고 삶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